

2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 화법과 작문, 독서 도덕과 : 생활과 윤리 사회과 :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권리, 시민의 권리, 점진적 접근방법, 자율성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전체의 규율과 개인의 자율 간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제시문 (마)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플라톤의 강령에는 위험해 보이는 유토피아적 접근법이 있는데, 이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점진적 접근법과 반대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이상국가가 정해져야만 한다. 이는 권력이 집중된 통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 독재로 흘러갈 것이다. 비판을 불허하는 독재자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선량한 의도와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독재자의 당대에 실현하기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과업을 후계자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민이 감수한 고난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뿐이다. 이는 돌맹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비타협적 급진주의, 탐미주의, 완전주의로서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낭만주의이다. 나는 이 점에 항의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만들 뿐이다. 이와 달리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이란 요원한 일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제도적 방법이란 없다. 모든 인간의 요구는 불행을 피할 수 있다면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점진적 공학자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사회 최대의 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상사회를 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공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성 대신에 폭력을 초래하

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방법은 반복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과학적 자세를 가진다면 합리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통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제시문 (바)

새뮤얼슨은 제한 없는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프리드먼을 반대하면서, “사적 이윤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강과 대기에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단순히 이기심만으로는 사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개인적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맺어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호등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다. 하지만 봄비는 도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까? 잘 설계된 정지 신호 앞에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누리는 자유의 산술적 총합은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지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출발 신호다.”

하지만 새뮤얼슨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는 편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정부가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정부 개입을 무조건 옹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사)

실패한 접착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잇’을 개발한 A사(社)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기업들 중 하나이다. 초기 경영진이었던 B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심하게 비판하는 경영진의 행위는 종업원의 자발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A사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A사에는 1년 내 개발한 제품으로 매출의 10%를 올린다는 ‘10% 원칙’과 4년 내 출시한 제품으로 매출의 30%를 올린다는 ‘30%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의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의 15%를 자유롭게 개인의 아이디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5% 원칙’이다. 직원들은 그 시간 동안 구상하는 내용에 대해 그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강요의 성격은 없어서, 15%의 시간을 개인의 아이디어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시문 (아)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려고 한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수제 쿠키를 생산하는 C사(社)는 2001년 설립 후 2007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다. C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들고 있다. C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쿠키는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에 있어 불리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주는 신뢰성과 취약 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C사 제품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줌으로써 C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1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45명의 발달장애인이 C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급여를 제공하였고, 10년 이상 장기근속 장애인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해졌다.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3. 출제 의도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합리적인 선택’, ‘민주주의’ 등에 관한 내용과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국가와 시민의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 즉 전체적 규율이 개인적 자율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적 자율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바), (사), (아)의 내용을 일관되게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와 <경제>에서 배우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기업의 자율적 혁신’, 제시문 (아)는 <통합사회>에서 소개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수험생으로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논쟁이나 사례가 모두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한 실천적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제시문 (바), (사), (아)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사태가 제시문 (마)에 바탕이 되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점, 다시 말해, 제시문 (바), (사), (아)의 논쟁이나 사례가 제시문 (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바, 이 점을 평가한다.